

투명 페트병 재활용 앞장...친환경 선도도시 롤모델 자리매김

민선 7기 광주시, 분리배출제도 조기 정착·교육 정책 돋보여

6월까지 제도, 이후 아파트 단지 30만원 이하 과태료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소단지 아파트까지 확대
아파트관리사무소와 협력 분리배출함 508개 배부 완료
초·중·고교생 대상 집중 교육 등 홍보·캠페인도 강화

한번 쓰고 버리는 투명페트(PET)병 분해기간은 500년이다. 재활용만 할 수 있다면 고품질 폐자원으로 몸값이 높아진다. 의류나 가방 등 원료가 되는 시트, 의료용 장섬유, 재생산병 등 재활용 원료로 높은 가치가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수거되는 투명 PET 29만 중 90%는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게 현실이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 메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페트병 속을 깨끗이 씻고—겉 라벨을 제거하고—과약 압축하고 뚜껑 닫고—다른 플라스틱과 구분·배출하면 된다. 단순히 보이지만 의외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광주시는 민선 7기 들어 친환경 도시 구축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시민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을 교육해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 시는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분리배출함 설치와 다양한 홍보·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투명 페트(PET)병 별도 분리배출제도' 선도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는 6월까지 제도기간...3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의무화됐다. 지키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3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다만 본격 시행에 앞서 오는 6월까지를 제도기간으로 하고, 자율적인 분리배출을 유도하

고 있다. 대상은 300가구 이상 단지와 150~299가구 규모 단지라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거나 공동난방을 하는 곳이다.

광주에선 동구 43, 서구 157, 남구 133, 북구 238, 광산 218곳 등 공동주택 789곳이 의무관리 대상이다. 단독주택과 나머지 소단지 아파트는 오는 12월 25일부터 분리배출 대상이 된다.

◇무색 페트병만 별도 분리수거함에 배출=아파트 주민은 생수나 탄산음료 용기 등에 주로 쓰이는 무색 투명 페트병은 사용 후 별도 분리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속이 비치는 반(半)투명 페트병도 가능하다. 유의할 점은 반드시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겉에 붙은 비닐 라벨을 깨끗하게 떼야 한다는 점이다. 비닐 라벨은 재활용 공정을 거쳐도 100% 제거되지 않아 재생 원료의 순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페트병은 압착한 뒤 뚜껑을 닫아주면 수거에 편리하다. 페트병 뚜껑은 색깔이 있긴 하지만 재활용 공정에서 본체는 분쇄되면서 물에 가라앉는 반면 뚜껑은 재질이 달라 물에 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리된다. 뚜껑이 없으면 몸통이 부풀어오르고 수거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뚜껑을 닫길 권장하지만 뚜껑을 제거해도 된다. 다만 철제 뚜껑은 분리배출해야 한다. 광주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과 협력을 통해 아파트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함을 집중 설치하고 있다. 시는 이미 분리배출함 508개 배부를 완료한 상태다.



광주 북구의 한 공동주택(아파트) 내 재활용 분리배출장에서 북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아파트 관리소 직원에게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의무화에 따른 제도사항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다만 투명 페트병이라도 커피 전문점에서 흔히 주는 글자나 상표가 겹면에 인쇄돼 있는 건 배출이 안 된다. 마트에서 흔히 보는 방울토마토나 딸기를 담은 투명 플라스틱도 재질이 다르거나 제품 스티커를 떼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따로 버려야 한다.

색깔이 들어간 유색 페트병은 지금처럼 다른 플라스틱 용기와 함께 배출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유색 페트병도 내부를 비우고 비닐 라벨을 떼어서 버려야 한다는 점이다.

◇광주시 분리배출 정착 정책 돋보여=광주시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정착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

양한 행·재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우선 오는 12월까지 언론과 사·자치구 홈페이지, 유튜브,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에 나선다. 또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홍보 캠페인도 강화한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분리배출 방법 안내판과 홍보 전단지 제작 배포하고,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함도 적극 공급하고 있다.

또 시와 자치구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교육을 진행하고, 초·중·고교를 직접 방문해 분리배출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은 (재)국제기후환경센터 전문강사단이 맡는다. 시는 분리배

출 우수 자치구에는 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반면 분리배출 수시 실태 점검을 통해 혼합수거 등이 적발될 경우엔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선다.

박재우 광주시 자원순환 과장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미래세대에게 오염되지 않는 광주를 물려주는 첫 걸음"이라며 "분리배출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효성은 지난달 8일 페트병에서 뽑아낸 재활용 섬유와 무농약 면화로 만든 면 티셔츠를 G3H100이란 브랜드로 선보였다.

효성 등 친환경기업, 투명 페트병으로 옷·가방 만드니 인기 폭발

페트병서 뽑아낸 재활용 섬유·무농약 면화 활용 티셔츠 등 만들어
상표 떼낸 생수병도 선풍적...물에 잘 녹는 水분리 라벨 적용도

기업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를 통해 생산한 친환경사업 제품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친환경 사업 선두그룹인 효성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액화수소 공장 신설, 페트병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환경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수소 인프라 구축, 재활용 섬유 사업 등 친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효성은 지난달 8일엔 페트병에서 뽑아낸 재활용 섬유와 무농약 면화로 만든 면으로 된 티셔츠를 'G3H10'이란 브랜드로 선보였다. 친환경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완성품의 류 제작에 처음으로 나선 것이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겨냥해 옷 판매도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으로

진행했다. 효성은 앞서 지난해 제주도, 서울시와 손잡고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친환경 폴리에스터 섬유 리젠을 만들어 옷 등 제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자원순환 프로젝트에 추진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제주도와 서울시는 각 지역에 버려진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고 효성은 이를 활용해 재활용 섬유 리젠제주와 리젠서울을 만들었고, 노스페이스와 플리츠마마는 이 섬유로 옷, 가방을 만들어 화제가 됐다.

롯데마트는 지난 1월 자체브랜드(PB) 생수 '조이스엘 세이브워터 에코(ECO)'를 출시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기존 '조이스엘 세이브워터'를 리

뉴얼해 라벨을 없애고 판매 금액의 10%를 비영리단체 '세이브더드립'에 기부하도록 한 상품으로, 월평균 매출이 리뉴얼 이전보다 60% 이상 늘어났다는 게 롯데마트의 설명이다.

소비자들의 재구매 의사도 86%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카콜라도 최근 국내 탄산음료 중 최초로 탄산수 '씨그림'의 라벨을 없앴다. 연간 플라스틱 절감 효과만 445톤에 이른다.

풀무원의 '아임리얼', '아임프룻' 등 제품에 물에 잘 녹는 수(水)분리 라벨을 적용했다. 약알칼리성 접착제를 써 소비자들이 굳이 라벨을 제거하지 않아도 재활용 공정에서 쉽게 제거되도록 만든 것이다.

롯데칠성음료가 지난해 생수업계 최초로 출시한 무라벨 생수 '아이스 에코(ECO)'는 지금까지 1010만개 이상 판매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나 실패할 것이나.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나 안 들 것이나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나 죽게 될 것이나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나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물들과 악수하기에 바빠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흥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인터넷판매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